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천광역시지회를 꿈꾸며



박승숙
대한가족보건의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장

인천광역시지회 전 직원은 인천 시민들의 웰빙 즉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사업에 전념하고 더욱 성실하게 모든 내원자, 검진자를 내 가족처럼 돌보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인천시민과 함께 한 시간

2004년 7월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2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중 유일한 여성의회로서 시의회 전반 업무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의회상을 구현하는 한편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얼문화재단 후원회 부회장, YWCA인천지회 이사, 인천지방법원 민사가사조 정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여성대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인천시민들에게 당면한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대(2기)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인천광역시청의 보건사업과 관련하여 협회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지회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4년 2월 인천지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인천시민의 가족보건복지사업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우리 협회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무료 분만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은 평생건강의 기틀이 되는 건강한 출발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

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이·미용 서비스, 한글교실, 목욕서비스, 백내장 수술지원, 틀니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은 인천광역시의 “따뜻한 복지” 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또한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여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지원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크게 관심이 되고 있는 “웰빙(well-being)이란 결국 ‘잘 사는 것’ 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일까? 진정 잘 산다는 것은 ‘행복’ 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라는 포괄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란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지회 전 직원은 인천 시민들의 웰빙 즉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족보건위원의 제반사업, 홍보사업,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에 전념할 것이며, 더욱 성실하게 모든 내원자, 검진자를 내 가족처럼 돌보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필자는 인천광역시지회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천광역시와 협회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우리 시민들의 협회를 통해 “건강한 삶” 즉 웰빙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박승숙 회장은 협회 회장 뿐 아니라 새얼문화재단 후원회 부회장, YWCA 인천지회 이사,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이사, 인천지방경찰청 여성대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중앙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인천광역시 당 수석 부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의장 전국 시·도 의회의장 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